

1990年 에너지센서스 실시 國家 에너지政策 基礎資料 活用

政府는 에너지消費의 量的變化와 소비패턴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今年 4월부터 7月中 에너지센서스를 실시한다.

에너지센서스는 에너지利用合理化을 근거로 매 3年마다 실시하게 되어있는 바 금번 에너지센서스는 우리나라 에너지의 주무관청인 動力資源部가 주관하고 에너지經濟研究院이 시행한다.

에너지센서스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의 에너지消費量, 에너지使用設備 및 經濟活動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에너지 소비부문별 에너지消費實態와 利用構造의 변동과 관련 經濟活動을 비교 분석하여 이와 관련된 에너지政策 수립 및 효과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금번 에너지센서스의 조사대상은 제조업, 운수업, 도소매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산업과 가정부문 및 대형건물로서 약 3만개의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 실시하게 된다.

현지조사의 절차는 일정양식의 調査表를 통해 조사대상과의 면접으로 조사원이나 피조사자가 작성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실시한다. 조사 완료된 調査表는 몇차례의 內檢과 電算處理 과정을 통해 조사결과를 도출하게 되며 그 조사결과는 今年 12월말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今年에 실시하는 에너지센서스의 주요특징은 제1차 에너지센서스事業이 시작된 1981년이래 10년이 지나는 동안 높은 經濟成長에 따른 에너지消費의 量的增加와 함께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 에너지消費構造의 現況과 原因을 파악하는 데 있다.

특히 經濟活動과 에너지消費行態, 技術進歩와 에너지利用器機 및 設備의 다양화에 따른 에너지이용구조, 社會 및 制度的要因 변화에 따른 에너지소비패턴의 변화를 심층분석하여 長短期 에너지政策 계획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80年代 에너지消費 실태를 살펴보면 '80年이후 작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消費는 年평균 7.0%씩 증가해 왔으며 최근 3년간은 약 10%의 높은 증가를

가져왔다. 에너지源別로 살펴보면 주요 가정용 연료로서 無煙炭은 '87年을 고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石油類는 꾸준히 증가하여 '89年기준 우리나라總 에너지消費 中 49.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原子力發電은 設備增加에 따라 '80年對比 11.3%포인트 증가하였다. 최근 자동차의 급증에 따른 휘발유소비의 증가 및 가정용 기름보일러의 보급확대에 따른 등유소비가 괄목하리만큼 증가하여 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에너지센서스는 최근 에너지消費增加 및 增加要因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의 合理的利用 에너지의 節約可能性 및 代替可能性 등 國家 에너지政策을 위한 基礎資料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酒精廢棄物에서 燃料生産 成功 韓國動力資源(研) 洪鍾俊 博士팀 開發

韓國動力資源(研) 바이오매스연구실 洪鍾俊박사팀은 최근 酒精生産工場에서 발생하는 증류폐기물을 嫌氣性醱酵法(공기가없는 상태에서 폐액을 미생물로 발효시키는 방법)에 의해 메탄가스(연료)로 전환하는 방법을 국내에서 처음 개발했다.

지난 2년간 1억4천만원을 들여 개발한 이 방법은 活性汚泥에 의한 기존처리법에 비해 15% 정도 에너지 代替效率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이 방법에 의해 생산되는 메탄가스로 약 30% 정도의 연료(병커 C 油)를 절약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年間 1만6천톤(LPG 기준)의 燃料를 폐수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水質汚染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고 廢水處理費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洪박사는 지난해 10월부터 全北 裡里의 D醱酵에 설치 운전중인 3톤 규모의 시험공장에서 에너지效率과 經濟性 分析이 끝나는 대로 한국형 酒精廢棄物 분해시스템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 시스템은 酒精工場 뿐만 아니라 맥주나 酵母工場의 廢棄物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蘇聯에서 濃縮우라늄 도입 올해부터 10年間 390톤

올해부터 '99년까지 10年間 蘇聯産 濃縮우라늄 3백90톤이 도입된다. 이회일 動力資源部 長官은 지난 5월 9日 韓國電力이 蘇聯의 원자력수출공사와 濃縮우라늄 導入 長期契約을 맺고 이를 政府가 승인, 今年 11월부터 국내에 蘇聯産 濃縮우라늄을 들여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導入키로 한 濃縮우라늄은 U 235 함유량이 3.5%인 최종제품으로 계약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99년까지 10年間이며, 도입가격은 지난해 장기계약분 평균가격인 Kg당 1천73달러의 55% 수준으로 '93년까지 4年間은 고정가격으로 들여오고 '94년 이후에는 매년 5% 범위내에서 美國의 물가상승률을 반영 조정된다. 動資部側은 다른 나라들과의 거래 관계 때문에 정확한 導入價格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10年間 導入될 우라늄의 총금액은 2억3천만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國際油價 경쟁적 引下 展望 國際原油時勢 1年만에 최저기준

國際原油市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우디는 原油輸出價格을 오는 7월부터 배럴당 25~70센트까지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사우디가 지난 '86년과 '88년처럼 油價붕괴의 위험을 무릅쓰고 市場占有率 확대를 위해 價格引下를 단행하자 쿠웨이트와 UAE도 輸出價格 인하방향을 강력히 시사했다. 兩國 石油長官은 사우디의 조치가 현재의 國際油價 약세를 더욱 가속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우리도 市場占有率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에 앞서 非OPEC國家인 오만은 지난 5월분 原油輸出價格을 배럴당 20~50센트씩 소급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專門家들은 사우디의 이번 인하는 지난 5월초의 減産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쿼터를 초과생산하고 있는 쿠웨이트와 UAE에 대해 生産을 줄이라는 경고용 조치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사우디에 맞서 다른 産油國들도 價格引

下를 통한 市場占有率 확대경쟁에 나설 경우 增産, 供給過剩으로 지난 '88년의 가격전쟁때처럼 國際油價는 배럴당 10달러 밑으로 폭락해 「油價싱글」 時代가 조만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一部 專門家들은 전망했다.

한편 油價는 사우디의 價格引下發表로 하락폭이 커져 國際油價의 基準이 되고있는 WTI(美서부텍 사스에서 質油)의 경우 8月物이 이날 전날보다 46센트가 낮은 16.68달러를 나타냈다. 이는 작년 6월 19일의 16.60달러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유럽현물시장의 브렌트油와 두바이油도 23센트, 35센트씩 떨어져 각각 15.17달러, 13.48달러를 나타냈다.

最近 油價약세의 근본요인인 OPEC의 生産過剩은 지난 5월에도 계속돼 하루生産량은 생산한도보다 1백30만배럴이 많은 2천3백40만배럴에 달했다.

一島 複合火力發電所 '92年 준공 電力需要增加에 대비

動力資源部는 급증하는 電力需要에 대비하여 1998년 준공예정인 一島 LNG 複合火力發電所 2호기(94萬KW급)의 건설계획을 앞당겨 1호기와 같이 1992년까지 건설키로 지난 5월 15日 발표했다.

동자부는 지난 1/4分期中 電力消費增加率이 17.4%로 '86년 11%, '87년 14%, '88년 15.8%, '89년 10.6%에 비해 큰폭으로 급증하고 있어 긴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와같은 電力需給安定對策을 마련하였다.

동자부는 張相鉉次官을 委員長으로 하고 관계부처 및 업계대표로 구성된 電力需給對策班을 설치, 전력수급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季節別로 특정시간대에 전력수요가 급증되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폭을 확대하고 수요억제 요금제도를 도입 5月 料金부터 적용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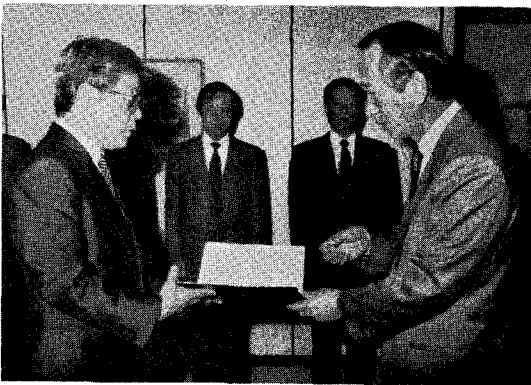
동자부에 따르면 '89년 18.7%에 이르던 電力供給豫備率이 최근 수요증가 추세에 비추어 볼때 금년말에는 14.4%로 低下되고 '91년에 8.9%, '92년에 4.7%로 大幅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動資部 '89 業務推進 우수기관 표창
韓電, 地域暖房公社, 電氣安全公社**

動資部는 지난 5월 1日 '89 事業業務 추진 우수 기관으로 韓國電力公社(社長 安秉華), 韓國地域暖房公社(社長 朴潤明), 韓國電氣安全公社(理事長 尹熙宇) 등 3개 기관을 선정, 표창했다. 이번 표창은 動資部 傘下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한해 동안 각 기관장 책임하에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자율평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개인표창이 아닌 기관 선정 평가는 올해 처음 신설됐다.

선정대상은 정부투자기관(5개사), 정부재투자기관(6개사), 특별공익법인 및 출연기관(8개사)으로 분류하여 動資部 사정공동지침과 기관별 자율선정에 근거하여 각각 1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로서 그간 매년 실시해 오던 개인별 위주의 공로표창에서 全機關까지 확대된 사정평가로 政府傘下 모든 기관이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공직 기강 평가에 따른 업무의욕 고취 및 자율적인 정화가 기대되고 있다.



**研究 開發 繼續을 提言
美原子力産業界 에너지省에**

美國 産業界의 委員會는 “에너지省(DOE)이 原子力發電所의 새로운 設計를 위해서 年間 2억\$의

資金을 供與하고, 研究開發을 加速할 必要가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

先進的인 原子力發電所를 設計하고자 하는 努力은 産業界와 政府의 共同 프로그램에 따라 進行되고 있는데, 電力研究所(EPRI)나 産業界도 이에 貢獻하고 있다.

코먼웰스 에디슨社의 J. 오코너 會長을 委員長으로 하는 委員會는 “合理的인 價格으로 電力을 適切히 供給할 것을 保證하기 위해서도 原子力發電은 必要하게 된다고 美國의 電力會社는 確信하고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

이 委員會는 1985年 DOE로부터 原子力의 研究開發프로그램을 評價하도록 要請받았는데, 具體的인 勸告는 最近 提出된 報告書에 收錄되어 있다. DOE에 對해서는 美國의 原子力産業界가 世界市場에서 活力을 維持하고 有能한 人材를 確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長期間에 걸쳐 變함없는 研究開發을 繼續하여야 한다고 提言하고 있다.

同 委員會는 輕水爐의 改良版인 ALWR에 대해서 다음 原子力發電所로서 美國에서 발주되는 경우도 생각됨으로 DOE는 여기에 높은 優先順位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指摘하는 한편 이와같은 發電所가 今世紀內에 運轉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具體的인 行動을 開始할 必要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立地의 承認이나 프로젝트의 資金調達, 리스크 分擔, 規制處理, 關聯된 業務問題 등을 다룬 全體計劃이 必要하다고 말한 同委員會는 計劃立案이나 立地評價는 가까운 將來에 開始되어야 하며 이와같은 活動을 促進하기 위해서도 DOE는 主導力을 發揮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強調하고 있다.

한편 同委員會의 報告는 新型爐의 計劃에 對한 EPRI의 要件을 檢討함에 있어 原子力規制委員會(NRC)의 움직임은 以前에 合意된 스케줄에서 불뻐 지연되고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그밖에 同報告는 來世紀의 技術로서 포텐시알을 지니고 있는 모듈라型 高溫가스冷却爐(MHTGR)와 新型液體金屬爐(ALMR)의 設計開發에 DOE는 繼續해서 資金을 投入하여야 한다고 提言하고, 投資家나 國民에 對해 安全性, 信賴性, 經濟性 등을 확실히 提示하기 위해서도 MHTGR의 先導的인 프 란트는 民間에서 設計할 必要가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

新型爐開發에 關해 契約 美에너지省, 메어커 2社와

美에너지省(DOE)은 금번 簡略化沸騰水型爐(SBWR)의 開發 계속으로 제네랄일렉트릭(GE)社에 4천850만달러를 제공하는 契約을 同社와 체결하였다.

SBWR는 先進型 原子力發電所로 出力은 60만 KW이다. 자연적인 힘이나 수동적인 시스템에 의해 안전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建設期間도 5년 이면 족한 것으로 되어 있다. SBWR의 設計는 DOE와 電力研究所(EPRI)가 스폰서인 研究開發 프로그램에 따라 進行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 契約에는 標準化 原子力發電所 로서 原子力規制委員會(NRC)의 인정을 얻는 작업도 포함되어 있다. DOE는 PWR에 대해서도 동일한 計劃을 進行하고 있으며, 웨스팅하우스社가 設計하고 있는 'AP-600'에 關해서 이미 同社와 契約을 체결하고 있다.

世界의 原子力發電所 '89年中 13基 增加

'89年 12月末 현재 世界의 稼動중인 原電은 425基로서 原電設備規模는 3억3,568만KW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102基(9,121만KW)가 建設중, 75基(7,516만KW)가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稼動, 建設, 計劃중인 原電의 總數는 602基, 總容量은 5억205만KW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 日本原子力産業會議 '89年次報告 內容)

'89年度에 추가된 原電은 13基(1,235만KW)이며, 原電을 新規導入한 國家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國家별로 보면 蘇聯 3基, 日本 2基, 그의 프랑스, 西獨, 불가리아, 韓國, 英國, 印度 등이 각 1基씩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90년에 27個國이 原電을 新規導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89年 原電관련 情勢의 특징은 첫째, 原子力 반대운동의 고조에 따른 PA(Public Acceptance)의 중요성, 둘째, 높은 신장세를 보이는 에너지·電力需要에 대한 安定供給의 필요성, 셋째, 炭酸가스의 배출규제 등 地區環境 保存을 위한 原子力役割

의 재인식, 넷째, 原子力發電所의 安全運轉에 關한 國際協力の 진전 등이 지적되었다.

〈表〉 1989年 運轉開始 原電

國 家	原 子 爐	容 量	爐 型	小 計
소 련	BALAKOVO-3	100만kW	PWR	3基, 300만kW
	ZAPADNAYA UKRAINA-3	100만kW	PWR	
	ZAPOROZHE-5	100만kW	PWR	
미 국	ALVIN W. VOGTLE-2	113.4만kW	WPWR	2基, 244만6천kW
	South Texas Project-2	131.2만kW	WPWR	
일 본	島根-2	82만kW	BWR	2基, 139만9천kW
	泊-1	57.9만kW	PWR	
프 랑 스	NOGENT SUR SEINE-2	136.3만kW	WPWR	1基, 136만3천kW
서 독	NECKAR GKN-II	130.1만kW	WPWR	1基, 130만 천kW
불가리아	KOZLODUI-6	100만kW	PWR	1基, 100만kW
한 국	蔚珍-2	95만kW	PWR	1基, 95만kW
영 국	TORNES-2	66만kW	AGR	1基, 66만kW
인 도	NARORA-1	23.5만kW	CANDU	1基, 23만5천kW
(合 計)	13基	1,235만4천kW		

資料: 日本 原子力産業新聞

電氣料金 평균 3.7% 引下 LNG 도시가스도 6.1% 내리

5月 1日 부터 電氣·電話·LNG 도시가스料금이 引下되었다.

정부는 産業用電氣料金を KWH당 45원58전에서 43원30전으로 5% 인하하고 1住宅 多家口는 평균 요금제도로 요금부과방식을 개선하여 KWH당 67원 32전에서 64원92전으로 3.6%를 인하했다. 또한 農業用電氣料金は 電氣를 사용하는 농사철에만 基本料金を 부과하도록 하며 電氣料金は KWH당 31원 78전에서 31원11전으로 2.1%를 내리, 종합요금 KWH당 53원51전에서 51원55전으로 평균 3.7%가 인하되었다.

동자부는 물가안정 및 産業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지난 4.20 물가안정대책에서 인하시키던 도시가스요금의 용도별 引下幅을 결정하였는데 조정내역을 보면 가정용 중앙난방의 경우 종전에 m³당 220원69전에서 192원96전으로 12.6%를 내렸으며 개별난방용은 210원66전으로 4.5%, 업무용난방용은 211원34전으로 4.2%씩 각각 인하하여 수도권지역의 도시가스요금을 평균 6.1% 인하하였다.

西海油田 南北共同開發 北韓에 大陸棚탐사 제의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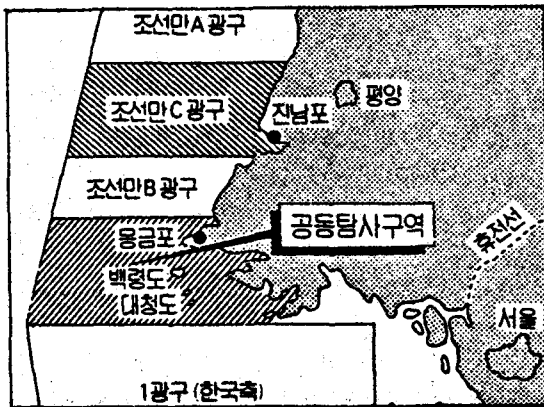
政府는 지난 4月 20日 靑瓦臺에서 南北交流協力 推進對策을 盧泰愚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정부는 남북간의 신뢰구축과 관계개선을 위해 西海岸 仁川 앞바다의 大陸棚 油田등 부존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南北電力系統을 연결하여 電力을 함께 쓰는 방안을 검토 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北韓 油田 共同開發事業의 첫단계로 백령도, 대청도, 몽금포일대의 大陸棚共同探查를 北韓側에 제의할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大同江 河口 130Km 해역에 위치한 북한의 조선만 C 鑛區의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소식통은 「이지역은 南北韓 모두가 鑛區를 설정해 놓고 있지 않으나 石油의 賦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이 일대가 油田共同開發의 최적지로 판단, 北韓側에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北韓도 현재까지 북한해역에서 10개 孔을 탐사 시추하는 등 油田開發에 주력하고 있으나



資本과 技術導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北韓側이 상호이익에 도움이 되는 大陸棚共同開發 제의에 응해 올 경우 南北韓 공동으로 石油開發技術 팀을 구성, 우리측의 장비와 자본으로 시

행하되 油徵이 발견될 경우 경비는 공동 부담토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北韓의 이른바 조선만 C 鑛區는 현재 濠洲의 메리디안사와 조광계약을 체결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이 광구의 개발에 우리 국내 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盧泰愚대통령은 南北交流協力 중점추진대책보고회에서 北韓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교류협력문제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제,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좀 있다하더라도 南北關係改善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2000年代 石炭生産 規模 年間 1,150만톤 유지 계획

動資部는 비경제탄광 폐광과 능률향상 가능 炭鑛 支援事業을 병행, 오는 2000年代 石炭 適正生産 規模를 年間 1천1백50만톤 수준에서 유지시키기로 했다. 政府 支援對象 炭鑛은 법인체로서 매년 3년 이상의 生産開發計劃書를 제출하는 탄광중 炭鑛開發審議委員會가 심의 확정된 炭鑛에 국한된다.

動資部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石炭産業 長期計劃(1991~2001년) 시안을 마련, 지난 5月 30日 學界 및 業界 專門家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 추가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石炭産業 長期計劃에서 動資部는 '98년이후로 예상되는 石炭 초과공급 해소방안으로 發電用 무연탄 소비량을 현재 年間 2백만톤에서 3백만톤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또 오는 '94년까지 생산성 향상이 없는 炭鑛을 폐광, 생산량중 1천1백3만4천톤을 감축하고 '97년까지는 매장량이 소진된 炭鑛을 폐광해 2백8만1천톤을 추가 감축키로 했다.

動資部는 石炭需要가 '90年 2천30만2천톤에서 '96年 1천36만8천톤, 2001年 9백26만2천톤으로 10年間 연평균 7.5%씩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비해 生産은 '90年 1천8백20만톤, 2001年 1천1백54만톤 규모로 연평균 4.8%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原子力發電事業協力 확대 韓日兩國 長官 合議

지난 5월 24일 盧泰愚 대통령의 訪日에 수행중인 鄭根謨 과기처장관은 山本牙司 日本 자원에너지청 장관과 만나 原子力安全協力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韓日 양국은 原子力 安全性分野 뿐만아니라 전반적인 原子力事業에 있어 協力を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특히 核事故에 대비하여 긴밀한 협조와 공동대처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核非常通信網을 설치하여 원자력시설의 安全性檢査 및 認許可方法 技術에 관한 경험교환 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바로쓰기」運動 캠페인 에너지 효율적使用 環境改善 도모

動力資源부와 에너지管理公團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에너지消費와 심각해지는 環境汚染 防止를 위하여 '90年代의 새로운 에너지消費 節約運動인 「에너지바로쓰기」運動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지난 6월 1일 전국적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에너지바로쓰기」運動은 종전의 에너지 節約運動의 개념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節約이 아닌 필요없는데는 안쓰고, 필요한데는 효율적으로 바로쓰자는 것이다.

「에너지바로쓰기」運動을 통하여 편리한 生活과 쾌적한 環境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生活樣式과 經濟·社會構造를 조성하고 에너지 消費課程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公害要因을 최소화하여 環境改善을 도모하며, '90年代에 예견되는 石油波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힘을 기르고자 하는 새로운 에너지 消費節約 運動이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에너지바로쓰기 캠페인은 가두캠페인과 고속도로 캠페인, 지하철 차내 캠페인으로 나누어 에너지管理公團 全 任職員 500명이 참가하였다. 한편 에너지管理公團은 '90年代에 예견되는 第3의 石油波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힘을 기르고 아울러 環境保全 効果도 거둘수 있는 에너지바로쓰기운동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燃料電池開發 본격추진 水素등 발생에너지利用

燃料가 갖고있는 水素와 空氣中の 酸素를 이용해 電氣를 발생시키는 燃料電池의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새로운 發電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燃料電池의 개발은 大學 研究所를 中心으로 燃料전지본체 전극 재료 燃料 재질조건등 기초연구에서 부터 응용연구까지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3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韓國動力資源 研究所와 韓電技術研究院은 40KW급 인산형 燃料電池의 개발을 추진중에 있다.

이 燃料電池는 메탄을 燃料로 하고 인산을 전해질용액으로 해 水素를 발생시키고 水素가 酸素와 반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電氣를 활용하는 장치이다.

에너지消費量 급증 1/4分期 昨年보다 12.8% 증가

에너지消費가 급증세를 지속, 지난 1/4分期중 에너지總消費量은 1천9백54만9천톤(석유환산)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30일 動資部는 製造業 생산회복으로 産業部門 에너지消費가 昨年 같은기간보다 13.4% 늘었고 차량 급증에 따라 輸送部門이 17.3%의 신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에너지源別로는 石油類가 20.7%, 電氣는 17.5%, 도시가스는 무려 89.4%가 증가한 반면 무연탄은 10.5%가 줄었다.

한편 1/4分期 에너지 輸入費用은 原油導入量 증가 및 도입단가 상승으로 昨年同期 對比 46.7% 증가한 22억5천만달라를 기록했다.